

TV 뉴스 앵커의 의상색 이미지에 관한 연구

정지연 · 이은경

대전대학교 패션디자인&비즈니스학과

A Study on the Image of TV Anchor's Clothes Color

Ji-yeon Jung · Eun-kyung Lee

Dept. of Fashion Design & business Daejeon University

1. 서론

영상 매체에 속하는 TV는 다른 대중 매체보다 사회생활에 깊숙이 파고들어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양식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. 특히 뉴스는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신뢰성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. 이러한 신뢰성은 내용의 중요도와 함께 앵커의 자질과 역할에 따라서 크게 좌우 되기도 한다. 앵커의 외모, 음성, 의상, 이미지 등에 의해 보도 기사의 신뢰도가 달라 질 수도 있다. 따라서 앵커는 외모, 태도, 의상, 헤어, 메이크업 등을 뉴스 프로그램에 적합하게 갖추어 시청자들에게 유능한 언론인으로서 인지되도록 하여 신뢰도를 얻어야 한다.

이에 본 연구는 TV 뉴스 앵커의 이미지메이킹을 위한 요소 중 시각적인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의상색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한다. TV화면에 나타난 의상색의 이미지 특성, 시즌별 색상분포의 특성, 배색분포의 특성 등을 살펴봄으로써 방송사의 앵커 선발, 취입시 의상색 선택, 이미지 교육의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.

2. 연구방법

이론적 연구 고찰로는 TV 뉴스 프로그램과 앵커에 대한 선행 논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. 의상색 분석은 국내의 지상파 방송3사를 선정하고 그 중 시청률이 가장 높고 각 방송사를 대표하는 메인 뉴스 프로그램(KBS 9시뉴스, MBC뉴스데스크, SBS 8시뉴스)을 선정하였다. 2008년도 여성 앵커들의 사진 자료를 수집하고 S/S, F/W로 분류하여 의상색을 분석하였다. 의상의 색 분류는 무채색과 면셀의 기본 5색인 Red, Yellow, Green, Blue, Purple로 분류하였다.

3. TV 방송 의상색 이미지 특성

TV에 의해 나타난 의상색의 이미지를 살펴보면 <표 1>과 같다.

표 1. 방송 의상색 이미지 특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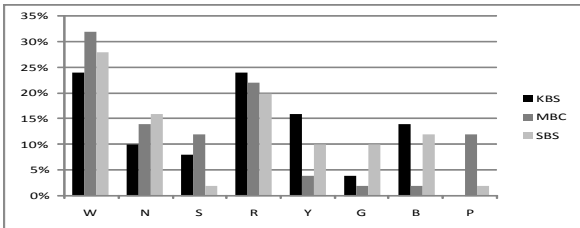
색 특성		의상색 이미지 특성
무채색	흰색	· 클래식, 문화, 시사, 보도 프로그램에서 선호 · 검정색과의 배색은 강렬하고 대조적이며 고급스러움을 표현
	회색	· 편안하고 지적인 이미지를 주어 뉴스 프로그램의 앵커들이 많이 선호
	검정	· 무채색과의 배색은 고급스러운 이미지 · 원색과의 배색은 강렬하고 독특한 이미지
유채색	빨강	· 색상이 밝을수록 즐거움을 연출 · 어두울수록 신비로운 분위기와 긴장감 연출 · 강한 이미지 연출
	노랑	· 젊고 경쾌하고 명랑한 이미지 연출
	녹색	· 방송에서 차별한 이미지를 연출 · 선명한 녹색은 활동적 이미지 연출 · 엷은 녹색은 고요한 이미지 연출 · 문화, 교양, 어린이 프로그램에서 선호
	파랑	· 짙은 감색은 세련되면서 신뢰감을 연출 · 중성색과의 배색은 도회적인 이미지를 표현 · 검정색과의 배색은 세련되면서 보수적인 이미지를 연출하여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에서 선호
	자주	· 주황과 연두색의 배색은 명랑한 이미지 연출 · 파랑과 자주, 상아색의 배색은 우아한 이미지를 연출 · 짙은 자주색과 검정색의 배색은 위엄성과 권위적인 이미지를 연출

위에서 보는 것과 같이 방송에서 사용되는 의상색은 TV라는 특정 매체 사이의 연관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며 프로그램의 특성을 파악하여 선택되어야 한다.

4. 연구결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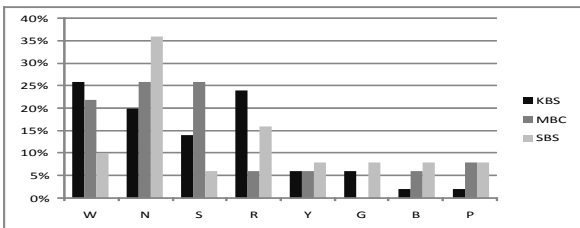
4.1 시즌별 색상 분포의 특성

S/S 시즌에는 앵커의 의상색이 White계열이 20%가 넘게 사용되는 것으로 분석 할 수 있다. 또한 Red계열의 색상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. KBS는 Green과 Purple, MBC는 Yellow, Green, Blue, SBS는 Black, Purple 색상의 사용이 적음을 볼 수 있다(그림 1).



(그림 1) S/S 방송사별 색상 분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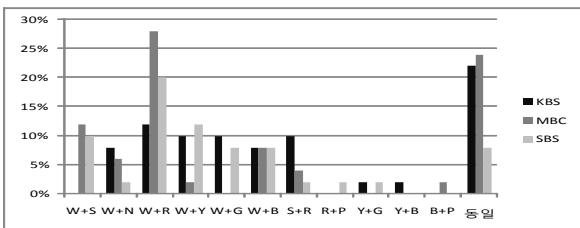
F/W 시즌에는 앵커의 의상색이 Gray계열이 20%가 넘으며 SBS는 36%를 차지하고 있다. KBS는 의상색으로 White 26%, Red 24%로 가장 많이 착용하였다. MBC는 무채색으로 의상색을 선택하였으며, SBS는 다양한 색상으로 의상을 착용하였음을 볼 수 있다(그림 2).



(그림 2) F/W 방송사별 색상 분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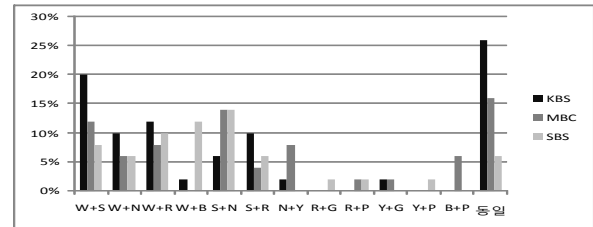
4.2 시즌별 배색 분포의 특성

S/S 시즌의 색상 배색은 무채색과의 배색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White와 Red로 배색 된 의상이 많이 사용됨을 볼 수 있다. 또한 동일 배색이나 단색으로 의상색을 선택하였다(그림 3).



(그림 3) S/S 방송사별 색상의 배색 분포

F/W 시즌의 색상 배색을 살펴보면 KBS는 동일배색과 White와 Black 배색이 가장 높으며, MBC는 동일배색과 Black과 Gray 배색의 사용 빈도가 높음을 볼 수 있다. SBS는 Black과 Gray 배색이 14%를 차지하고 있으며, White와 Blue 배색이 그 다음을 이루고 있다(그림 4).



(그림 4) F/W 방송사별 색상의 배색 분포

5. 결론

뉴스앵커의 의상색 선택은 3개 방송사 모두 시즌별 비슷한 의상색을 착용하였으며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. 의상색은 주로 무채색이 많았고, 유채색 중에서는 Red 계열의 색을 톤에 변화를 주어 선택하였다. 재킷과 안에 조화시켜 입은 옷과의 배색 방법은 동일배색이나 단색으로 매치시켰으며 또한 무채색 배색 중 흰색과의 배색이 가장 많았다. 보색배색이나 유사색 배색이 사용되는 하지만 그 비율은 매우 낮았다. 의상에서 배색 방법은 시각적으로 큰 면적을 차지하여 앵커의 이미지에 미적 효과를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에 추후 다양한 배색 이미지를 연구하여 선택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.

참고문헌

- [1] 김민신(2007) TV 프로그램에 따른 방송인의 이미지 메이킹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-TV분장, 헤어, 의상을 중심으로-, 숙명여자대학교.
- [2] 김영란(2001) 텔레비전 뉴스진행자의 의상디자인에 관한 연구-SBS 8시뉴스 여성앵커를 중심으로-, 홍익대학교.
- [3] 박성희(2004)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 TV여성 앵커의 패션 이미지변화에 관한 연구, 성균관대학교.
- [4] 이종락(1997) 한국 TV앵커의 특성에 관한 연구, 한국외국어대학교.
- [5] 정하나(2003) TV 진행자들의 이미지 메이킹 연구-뉴스/시사프로그램을 중심으로-, 원광대학교.